

옛날 옛적에, 작은 개구리가 깊은 우물의 밑바닥에서 살았습니다. 작은 개구리는 목이 마를 때 마실 물이 있었고, 배가 고플 때 먹을 곤충들이 있었습니다. 피곤할 때면, 개구리는 벌렁 드러누워서 우물 입구 위로 높이 있는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개구리는 한 번도 우물 밖에서 살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제외하면 개구리는 자신의 삶에 행복해 했습니다. 개구리는 외로웠고 같이 놀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동물이 물을 마시러 우물에 올 때마다, 작은 개구리는 우물 맨 꼭대기를 향해 소리치곤 했습니다. "안녕! 내려와서 나랑 놀지 않을래? 나는 먹을 것과 물도 있고, 살기 좋은 장소도 있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거야."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고마워, 개굴아. 근데 우린 여기 밖이 더 좋아. 세상은 우물 밑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멋있단다." 하지만 작은 개구리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새들은 물을 마시러 우물 속으로 내려오곤 했고 개구리는 새들에게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우리랑 놀자."라고 새들은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물 밑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멋있단다." 하지만, 작은 개구리는 새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집보다 더 멋진 건 없어."하고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개구리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들은 후, 대부분의 새들과 동물들은 개구리에게 말하는 것을 그만 두었습니다. 작은 개구리는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구리에게 가장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은 왜 아무도 자기가 사는 곳에 와서 살고 싶어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참새 한마리가 물을 마시러 다시 우물에 왔습니다. 참새는 개구리에게 자신과 함께 큰 세상 밖으로 날아서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세상은 여기 우물 밑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멋있단다."

작은 개구리는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거짓말 해? 내가 사는 곳보다 더 좋은 덴 아무데도 없다고!" 참새는 화가 나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전히, 참새는 우물에서 물을 마시러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매번 개구리는 참새에게 우물에 남아 자기와 놀자고 초대했습니다. 매번 참새는 우물 밖의 넓은 세상에 대해서 개구리에게 말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참새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새가 우물 속으로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는 대신에 참새는 개구리를 집어 들고 개구리와 함께 우물 밖으로 다시 날아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개구리는 우물 밖의 밝은 햇빛 때문에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개구리는 눈을 뜨고 하늘 높이서 자신 주변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개구리는 세상이 자신이 이전에 믿었던 것보다 얼마나 더 큰지 보고 놀랐습니다. 작은 개구리는 자신의 우물이 얼마나 작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참새야, 고마워. 네가 보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 널 믿지 않았던 거 미안해. 여기서 좀 내려줄래"하고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참새는 개구리를 아주 크고 아름다운 연못 옆에 내려준 뒤 말했습니다. "네 허락 없이 널 네 집에서 데리고 나와서 미안해. 원한다면 다시 데려다 줄게." 아무 대답도 없이, 개구리는 풀 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많은 아름다운 꽃들을 보았습니다. 개구리는 이전에 그런 아름다운 꽃들을 본적이 없었고, 또 그런 좋은 향기도 맡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진짜 크고, 멋있고, 아름다워!" 작은 개구리는 행복하게 소리치며 연못 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참새가 얼마 후에 돌아와 물었습니다. "개굴아! 우물 밖 세상은 어때?" 작은 개구리는 말했습니다. "크고 아름다워! 정말 고마워. 네가 날 바깥 세상에 데리고 나와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내 우물 밖에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절대로 알지 못했을거야." 개구리는 다시는 자신의 옛 우물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답니다.